께끈한것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일이 없을것이다

장금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 담화

16일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꼴불견으로 서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다급해난 청와대가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식립장이라는것을 밝히였는데 지난 시기 오래동안 써먹던 아주 낡은 수법대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감히 그 누구를 위협하는따위의 가소로운 입질까지 해대고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느니,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느니,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다느니,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것이라느니 하며 그나마 체면치레라도 해볼 심산으로 눈을 질끈 감고 비명같은 소리를 질러대는 꼴을 지켜보았다.

여직껏 쓰레기들의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묵인했다는 우리의 다불림앞에 시달리고 쫓기우던데다 제 집안내부에서도 굴욕적인 저자세정책, 북하명에 굴종하는 정책이라는 비난공세를 수다하게 받아왔은지라 그래도 이번만은 체면유지가 절실했던 모양이다.

온 민족과 세계앞에서 한 북남선언과 합의를 휴지장으로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데 도대체 그 책임을 누구보고 지란 말인가.

우리가 가장 신성시하는것을 건드려 우리 인민을 그토록 격노하게 만들고 정세를 걷잡을수 없는 막바지에로 몰아온 도발자가 과연 누구인데 감히 누구에게 매를 들겠다는것인가.

세상은 책임져야 할 장본인을 너무도 명백히 가려보고있다.

응당한 죄값을 치르는 봉변을 당한것뿐인데 가책을 받을 대신 저렬하게 사태의 책임을 론하며 우리더러 그것을 지라니 우리는 기꺼이 책임질것이다.

책임을 져도 우리에게 해될것은 하나도 없기때문이다.

비겁하고 나약하고 때없이 께끈하게 노는 상대와 골백번 마주앉아야 리행될것도 없고 북남관계의 앞날도 보이지 않는데 책임진들 무엇이 두렵겠는가.

우리는 지켜볼수록 혐오스럽고 께끈한 남측당국과 더는 마주앉고싶은 생각이 없다.

그래서 북남사이의 접촉공간들을 없애버리는 일을 시작한것이다.

북남관계가 총파산된데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여 눈섭 하나 까딱할 우리가 아니다.

득실관계를 따져보아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실도 없다.

집권기간 치적쌓기에 몰두해온 남조선당국자에게나 리해관계가 있는 문제이지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득을 보려고 남측을 상대한것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조선당국과의 무슨 교류나 협력이란 있을수 없다.

주고받을 말자체도 없을것이다.

지금까지 북남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으로 여기면 그만이라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다시 확인한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우리가 이미 내린 결단이 천만번 옳았다는것이 증명되였다.

주체109(2020)년 6월 17일
평 양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발표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단계의 대적군사행동계획방향에 대하여 공개보도하였다.

17일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계획들이 검토되고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립장을 밝힌다.

1. 우리 공화국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임무를 수행할 련대급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것이다.

2. 북남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경계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것이다.

3. 서남해상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 급수를 1호전투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들을 재개하게 될것이다.

4. 전 전선에서 대남삐라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살포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와 같은 대적군사행동계획들을 보다 세부화하여 빠른 시일내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것이다.

최고존엄과 인민의 운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에 접하여 지금 공화국의 전체 인민은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는 인간쓰레기들이 전연일대에 기여나와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며 최고존엄까지 건드리는 망동을 부린것은 공화국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바쳐 키우신 공화국의 인민들은 조국이 무엇이고 인간의 참된 삶이 어떤것이며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자기들의 만복을 꽃피우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똑똑히 알고있다.

공화국에서 최고존엄은 인민의 운명이고 정신적기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온 나라 인민들이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시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에 구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이 있어 공화국의 인민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높고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다.

태여난 고장과 이름, 주소는 달라도 누구나 존경과 매혹의 정을 담아 한목소리로 부르는 민족의 어버이.

그 따사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나어린 《꽃망울》들도 활짝 피여나고 배움의 소리 온 나라에 울려가며 집집의 창가마다에서도 즐거운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 그칠새없이 울려나오니 노래에도 있듯이 정녕 그이없인 못사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창조의 손길은 화도 복으로, 역경도 순경으로 만들며 이 땅우에 전변의 새 력사들을 펼쳐가고있다.

얼마나 많은 황홀한 창조물들이 인민을 위해 도처에 수풀처럼 일떠섰는가.

그이의 탁월한 령도는 말그대로 기적창조와 비약의 원천이며 더욱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오는 모든 승리의 열쇠이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의 긍지높은 오늘과 밝은 미래도 있고 인민의 존엄높고 행복한 삶도, 미래도 있는것이다.

이렇듯 조국의 위대함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고 자신들의 행복과 미래가 어떻게 담보되는가를 온넋으로 절감하는 공화국인민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해 바치는 삶을 가장 영예로운것으로, 가장 큰 행복으로 간주하며 최고존엄을 사수하기 위함이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고있는것이다.

그럴진대 우리의 넋과 심장에 마구 칼질을 해대는자들을 어떻게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한줌도 안되는 인간쓰레기들이 이번에 공화국인민의 생명이며 정신적기둥인 최고존엄을 건드림으로써 공화국의 존재와 미래를 통채로 거부하고 인민의 존엄과 운명, 미래도 다 부정하고 우롱하였으니 더욱더 용서할수 없다.

공화국인민들은 자기들이 신성시하는것가운데서도 제일 중심핵인 최고존엄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 있건 추호의 용서와 자비를 모른다.

공화국인민들은 자기 운명의 전부와도 같은 최고존엄을 건드린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며 조국을 배반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의 나발을 지금껏 묵인하고 조장해온 남조선당국도 그에 따른 응당한 죄값을 치르게 될것이다.

리혜성

대결광신자들에게는 긴말이 필요없다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걸고드는 인간쓰레기들의 극악무도한 악행이 저질러진 때로부터 천하역적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내리려는 인민들의 활화산같은 분노는 식을줄 모르고있다.

나서자란 고향과 부모형제들, 안아주고 키워준 고마운 조국의 품을 배반하다 못해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헐뜯으며 무엄하게 날뛰는 미친개무리들을 모두 때려잡자는 증오의 목소리가 강산에 메아리치고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남조선집권층내에서는 뻐저린 속죄와 진정한 반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저분한 변명이나 빈껍데기뿐인 《대책》따위의 횡설수설이 울려나오는가 하면 상대방을 걸고드는 격분할 나발까지 터져나와 공화국인민들의 적개심을 더욱 불타게 하고있다.

16일 공화국이 개성공업지구에 꼴불견으로 서있던 북남공동련락사무소를 폭파해치우는 결단을 내린데 대해서도 남조선당국자들은 긴급히 안전보장회의라는것을 소집하고 강한 유감이니,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다느니,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것이라는 등의 황당한 넉두리들을 늘어놓았다.

남조선군부패거리들도 기자회견을 벌려놓고 《군부는 여러 형태의 〈도발〉에 적극 대비하고있다.》,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있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있다.》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오늘의 험악한 사태를 초래한 저들의 범죄적인 책동을 가리우고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철면피한 넉두리라 하지 않을수 없다.

공화국이 가장 신성시하는것을 건드려 공화국인민들을 그토록 격노하게 만들고 정세를 걷잡을수 없는 파국적국면에로 몰아온 도발자는 다름아닌 남조선의 현 당국이다.

그러니 책임을 따져도 그것은 남조선당국에 있는것이다.

응당한 죄값을 치르는 봉변을 당한것뿐인데 가책을 받을 대신 저렬하게 사태의 책임을 론하며 생주정을 부리는것이다.

내외가 인정하다싶이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의 기운이 고조될 때마다 이에 찬물을 뿌리군 하였다.

남조선의 대결광들이 동족과 체결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란폭히 짓밟고 외세와 함께 계속 광란적인 북침전쟁연습과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려온것은 세상이 다 지켜보고 비난해온것이다.

공화국인민의 정신적기둥을 감히 모독한 인간쓰레기들의 이번 특대형범죄도 남조선당국의 묵인비호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저들도 토설한바와 같이 2000년이후 수십차례나 감행된 배신자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이 벌어진 곳들은 모두가 남조선군부가 《민간인통제선》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람들의 출입과 움직임을 제한, 감시, 통제하고있는 군사분계선접경지역들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추물들의 저렬하고 더러운 행위가 남조선당국의 철저한 조종과 비호속에 감행되였다는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나오고있는것은 낯가죽이 곰의 발통처럼 두꺼운 행위이다.

이미 담화들에서도 천명된것처럼 지켜볼수록 혐오스럽고 께끈한 남측당국과 더는 마주앉고싶은 생각이 없고 그래서 공화국은 북남사이의 접촉공간들을 없애버리는 일을 시작한것이다.

대결광신자들에게는 긴말이 필요없는것이다.

고영수

우리의 최고존엄을 건드린자들을 단호히 죽탕쳐버릴것이다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대변인 담화 발표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대변인이 1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인간범주에 속하지도 못하는 인간쓰레기들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어보려고 반공화국삐라를 살포하는 망동짓을 감행한데 대하여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치가 떨려 참을수 없으며 당장 달려가 죽탕쳐버릴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고 밝혔다.

담화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생명이고 넋이며 삶의 전부인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한 특대형범죄행위를 저지르도록 방치하고도 아직까지 진정한 반성도 없이 얼떠름한 태도와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감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아예 인간이기를 그만둔 추물들과 그것을 부추기는 남조선당국자들은 저지른 죄과의 엄중성으로 하여 민족의 단호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우리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전체 성원들은 더럽고도 파렴치한 인간추물들을 모든 재중동포들과 전세계 진보적 인류의 이름으로 신성한 하늘아래서 순간도 살아숨쉴수 없게 단호히 죽탕쳐버리고야 말겠다는것을 선언한다.

본사기자

조선의 정의의 보복조치를 full 적극 지지한다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지역기구, 인사들이 지지와 련대성 표시

남조선당국의 비호묵인하에 인간쓰레기들이 감행한 반공화국삐라살포망동과 관련하여 공화국이 취한 단호한 조치에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지역기구, 인사들이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는 14일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간쓰레기들의 망동은 철두철미 남조선당국의 묵인조장하에 감행되였다.

북남관계에서 실질적인 전진이 없는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당국의 불성실하고 량면적인 태도때문이다.

우리는 조선의 정의의 보복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같은 날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서 이렇게 천명하였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린 인간쓰레기들과 그런 망동짓을 묵인한 남조선당국의 죄행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값을 깨깨 받아내려는 조선의 당과 정부의 립장을 지지한다.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는 12일 성명에서 조국을 배반하고 몇푼의 돈을 위해 공화국에 대한 거짓선전과 궤변을 퍼뜨리는 인간쓰레기들은 준엄한 판결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였으며 벌가리아공산주의자동맹 명예위원장은 신문 《나드55》 15일부에 게재한 글에서 남조선당국이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저지름으로써 북남관계를 보다 악화시켰다고 단죄규탄하였다.

인간쓰레기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반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련대성을 보낸다고 하면서 인디아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4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악질보수언론들은 갖은 요설로 인간추물들의 망동에 맞장구를 치며 천벌맞을짓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이 추구하는 진짜목적은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하여 북남사이에 적대적인 감정과 긴장만이 흐르게 하자는것이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전면파기하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하고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

민주꽁고공산당 총비서는 12일 담화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인간쓰레기들의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방치한 남조선당국의 처사는 그들에게 북남관계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인간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방치할 때 북남관계에 어떤 파국적인 후과가 미치고 저들이 치를 대가가 어떠하겠는가를 과연 몰랐단 말인가.

우리는 조선당과 정부의 모든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보다 앞서 오스트리아원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와 오스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는 성명들에서 전연일대에까지 기여나와 망동짓을 한 인간쓰레기들의 죄행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발행위로 락인하고 남조선당국이 모든 적대행위를 당장 중지하며 이번 삐라살포와 관련하여 조선인민앞에 사죄할것을 요구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도이췰란드 베를린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남조선당국의 묵인하에 너절한 대결망동을 일삼고있는 인간오물들을 지구밖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북남사이의 모든 통신련락선들을 완전차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전률케 하는 첫 단계의 행동이다.

공화국이 취한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새 유고슬라비아공산당,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청년동맹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묵과한 남조선당국의 태도는 북남합의를 리행할 의지가 없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실례이다, 남조선당국은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화국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선통일지지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는 이렇게 성명하였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며 《핵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댄 민족반역자들의 망동짓은 조선인민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조선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저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하며 위험천만한 반공화국적대행위를 방치해두는 남조선당국의 처사를 준렬히 단죄한다.

우리는 조선에 대한 온갖 도발책동에 강력히 항의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여나갈것을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단체들에 호소한다.

본사기자